

2018년 2월 5일 (월) 도시와 미술연구소 · 제 9 회 연구회

발표개요

무하 제작 《지스몽다》 고찰
- 초상화로써의 연극 포스터 -

와세다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미술사학코스

석사과정 2년 카와이 리사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 1860-1939)가 19 세기말 파리에서 제작한 일련의 포스터는 당시 높은 인기와 평가를 받았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제작한 《지스몽다》는,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가 주연을 맡은 희곡 『지스몽다 *Gismonda*』의 재연을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이며, 이 작품을 계기로 무하의 명성은 널리 알리게 되었다. 베르나르는 이 작품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며, 무하와 6 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그녀가 주연하는 연극의 포스터는 전부 그에게 의뢰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무하에 의한 베르나르 주연의 연극 포스터 중에서 제일 첫 작품인 《지스몽다》에 초점을 두어, 이 작품이 단순한 포스터가 아니라 초상화로써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19 세기 말의 파리에서는 포스터의 유행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쥘 세레는 포스터에 선명한 색채를 사용한 첫 화가이며, 포스터의 표현을 다양화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포스터는 단순한 광고 매체가 아닌, 누구나가 감상할 수 있는 예술작품의 형태로 사랑받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에 따라 베르나르도 자신이 주연하는 연극을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를 의뢰하였다.

1894 년, 삽화가로서 평가받기 시작한 무하가 《지스몽다》의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다. 화면 중앙에 배치된 등신대에 가까운 베르나르 상에는 그녀의 화려하고 거대한 존재감이 드러나 있다. 또한, 무대 장치의 모티프를 조합한 배경에는 연극의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음과 동시에 베르나르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이 깃들여 있다. 이 작품의 그림은 추후의 공연 포스터에도 사용되어, 그녀 자체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러나 무하는 본 작품에서 단지 아름다운 베르나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공비(公妃)지스몽다로서의 위엄있는 모습으로 베르나르를 표현하여, 그녀가 확립시킨 세계적인 대배우라는 굳건한 지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